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34.016단

▶공동 십자가의 길: 주일 08시 50부터 윗성당

날 짜	주관 단체	인원
2/18(일)	꾸리아	각 단체마다 4명 필요 : 십자가 1 주송1, 초2
2/25(일)	청년회	
3/03(일)	요셉회, 성모회	
3/10(일)	성소후원회, 성령기도회	
3/17(일)	울뜨레아	
3/24(일)	사목회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Youth 교리반(교리와 활동) 오늘 개강

대상: 6학년 이상~ 12학년까지의 영어권의 모든 청소년들.
첫모임: 오늘 미사후 바로 성당 뒤에서, 교사를 만나 교리실(교육관 2D)로 이동합니다.

* 교리 참석자중에 견진 대상자들은 2024년 3월 30일(부활성야 미사)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3월 유아세례 신청받습니다~

3/10(주일) 09:15 미사중. 신청: 사무실 347-834-5784

“신앙은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주어져야 하는데 아이와 상관없이 부모가 맘대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훼손하는거 아닌요?”

자녀가 학교가기 싫다고 떼쓴다고 『너의 자유이니 맘대로 하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Mk10,14) 하셨고 어린아이를 당신 팔에 안으시고 축복하십니다 (Mk10,16). 신앙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유아세례는 부모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사순특강 및 판공성사, 2월 25일(주일)

사순시기동안 정화된 마음으로 주님 부활을 맞으시도록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10:30~12:00 다미아노홀	사순특강	강사: 김영민 미카엘 신부 (뉴저지 메이플우드 한인성당)
12:00~12:30	김밥	-
12:30~3:00 아랫성당	고해사제	김찬미 가비노 신부 (평화방송, 평화신문 미주 지사장) 김영민 미카엘 신부 김진열 가롤로 신부

▶청년 판공성사, 3월 9일(토)

4:30pm~6pm	황필구 신부(브루클린 St. Anselm 성당 주임) 김진열 가롤로 신부
------------	---

▶사순시기, 교우들의 실천사항

- 1)건강등의 이유로 미사,공동체 모임 참여를 못하시는 교우분들께 주보 전달하기
- 2)커피 한잔등의 기호를 줄여 공동체 모금활동에 기여-사순저금통

▶2024, 성경 통독 합시다~

날마다 15분이상,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매일 와닿은 말씀을 노트에 적으면서 성경말씀에 맛 들이는 굳건한 신자가 되세요. 성경 통독표는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c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제66차 기초 성령세미나 신청(미동북부 지역 성령쇄신 봉사회)

일시: 2024. 3/14(목) 5pm~3/17(일) 5:30pm 3박4일

장소: 뉴튼 수도원. 지도: 봉사회 지도신부 및 사제단

신청마감: 2/29(수) 참가비: 390불(숙식제공)

신청: 성령기도회장 이안나 917-579-5072

▶레지오 마리아 캐나다 성지순례(미동북부 지역 교육협의회)

일시: 2024. 4/25(목)~4/27(토) 2박3일, 참가비: 800불

장소: 캐나다(Montreal, Quebec) 지도: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

신청마감: 2/29(수) 신청:꾸리아 단장 윤루시아 347-633-3767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FLORA YANG) 무역 수입 IMPORT & 수출 EXPORT 657-337-5130 marketing@czlusa.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 nycacu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INE & LIQUOR 빈다김 데레사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더큰집 TEL. 212-564-8238

WONJO New Wonjo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 1,2,3 FL, New York, NY 212-594-4963 전 스테파노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32 St.-33 St.) New York, NY 10001 Tel: 347-840-2112 Fax: 212-631-8070 hanbittour@gmail.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광고주를 찾습니다.

2024년 교황 사순 담화문(요약)

하느님께서 광야를 통해 우리를 자유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언제나 다음과 같은 자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탈출 20,2) 자유로의 부르심은 힘든 요구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집트에 매여 있던 것처럼,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에 우리는 참으로 그러한 속박에 매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순 시기는 은총의 때입니다. 이 은총의 시기에, 광야는 다시 한번 우리 첫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호세 2,16-17 참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형성하시어 우리를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가는 파스카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사순 시기를 구체적으로 거행하려면, 그 첫걸음은 **현실에 눈 뜨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당신께서는 보시는 하느님, 무엇보다도 들으시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 주셨습니다.(탈출 3,7-8 참조) 오늘날에도, 억압받는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의 울부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그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나요? 그 울부짖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를 움직이나요?’

사순 시기는 **회개의 시기, 자유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순 제1주일에 기억하듯,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유로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다시는 노예 상태에 빠지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통하여 우리의 자유가 성숙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과 탈출기가 분명히 보여 주듯이, 이는 어떤 싸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탈출 20,3) 하느님의 이 목소리에 원수와 그의 거짓말이 대적합니다. 파라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스스로 세운 우상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커녕

무기력하게 만들고, 만남 대신 갈등을 낳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사순 시기에 **행동한다는 것은 또한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 안에서 멈추고, 사마리아인처럼 다친 형제나 자매가 있는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서로 관계없는 세 가지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우상들과 우리를 구속하는 집착을 쫓아버리는, 개방과 자기 비움의 단일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위축되고 외로웠던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고,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꿈이자, 우리가 노예살이를 뒤로한 채 여행을 떠나는 약속된 땅입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사순 시기가 시류를 거스르는 크고 작은 **공동체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때**라는 것도 시사합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것을 꼭 실천하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마태 6,16) 이렇게 하는 대신, 가장 작은 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쁨 가득한 얼굴을 보게 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받도록 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사랑을 체험하도록 합시다.

이번 사순 시기가 회개의 때가 된다면, 불안해하는 인류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인 솟구치는 창조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위험을 감수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막대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고통스러운 애원을 듣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단편적으로 치러지는 제3차 세계 대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말마의 고통이 아닌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에, 그리고 마침이 아닌 역사의 위대하고 새로운 장의 시작점에 머무르며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용기를 냅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리스본 대학생들에게 한 연설, 2023.8.3.) 이러한 것이 회개의 용기이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사순 시기 여정을 축복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Francisco*